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

환영사



박 구 만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회장

우리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 창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회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원로, 역대 임원진, 개인 회원 및 기관 회원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과 미디어 분야는 지난 30년 동안 혁명적 변화가 있었고, 그 중심에 우리 학회 회원들의 큰 기여가 있었습니다.

학회가 창립되는 과정에서 기초를 다져 주신 송재극 고문님, 초대회장을 맡아주신 나정웅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태원 교수님, 이충웅 교수님, 이혁재 교수님 등 초창기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학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있어 원로 회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상욱 교수님, 이광직 교수님, 이재홍 교수님, 박재홍 교수님, 정제창 교수님, 정대권 교수님, 안치득 소장님, 이상길 교수님, 호요성 교수님, 김용한 교수님, 김동욱 교수님, 전병우 교수님, 이영렬 교수님, 박종일 교수님, 이수인 소장님, 조남익 교수님 등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 학회가 대한민국의 방송과 미디어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1994년 7월15일에 창립되어 어느덧 성숙한 나이인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창립총회와 지난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던 프레스센터에서 다시 30주년 기념행사를 열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학회가 창립되던 90년대는 아날로그 방송이 서비스되던 시기이고 새로운 디지털 방송 기술 개발과 도입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은 흑백 TV에서 컬러TV로 바뀌었을 때의 문화적 충격보다 더 큰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은 지난 30년 동안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HDTV에 이은 UHD TV가 개발되어 선명한 화질 제공, 3DTV,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과 미디어의 소비 패턴 변화, 개인 방송의 활성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경쟁, XR 등의 실감 미디어 기술 등이 사회 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러한 변화를 우리 학회가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학회는 지난 30주년을 자축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과거의 성과를 통해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송과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방송과 미디어 환경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이 큰 변화를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실감미디어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은 방송, 영화와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 환경과 창작 기법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 중국 및 몇 개의 국가들이 주도해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유지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선도해야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

환영사

하는 힘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인공지능이 불러오는 또 다른 혁명적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회원들께 새로운 이론과 기술, 발전 동향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술논문, 학회지, 학술대회, 워크숍, 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서 가장 앞선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우수한 연구 결과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진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방송과 미디어 분야 및 산업계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방송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학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외연을 넓혀가겠습니다. 방송과 미디어 분야는 사회·문화·정치적인 이슈가 공존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공학적 리더십'을 통해 미래의 기술 변화를 선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기술 정책 분야에서도 학술적 기여를 통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공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영광과 보람을 되새기면서 동시에 앞으로 학회가 발전해 나가고 회원들께 봉사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학회의 모든 회원들께서 방송과 미디어 분야의 학술활동, 기술확산 및 사회 봉사를 더욱 폭넓게 하실 수 있도록 학회가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